

올 프로야구 '가을잔치' 주인공은?

SK와 두산, 삼성, 한화가 2007 프로야구 '가을잔치' 초대장을 예약했다. 21일 현재 SK의 정규리그 1위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두산, 삼성, 한화가 2위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네 팀의 포스트시즌 전력을 미리 분석해 봤다.

▲2000년대 명문팀-승부는 안갯속
이들 네 팀은 2000년대 명문구단 입지를 확고히 굳힌 팀으로 꼽힌다.

전통의 강호 삼성은 2002년, 2005~2006년 등 세 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우뚝 서며 최고 명문팀으로 자리 잡았다. 2001년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안고 2004년, 2005년 포스트시즌에 오른 두산도 꾸준한 팀.

김인식 감독 영입 후 면모를 일신한 한화도 3년 연속 가을 잔치에 초대돼 대권을 노려보게 됐다.

2003년 2위, 2005년 3위로 돌풍을 일으켰던 SK는 2006년 6위로 처지며 위기를 맞는 듯 했으나, 올 시즌 김성근 감독과 이만수 코치의 영입과 함께 야구계에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를 선언하며 새 바람을 불고온 명문구단이다.

이들 네 팀이 올 시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저력은 역시 철벽 마운드다. 네 팀 모두 마운드가 튼튼한 탓에 포스트시즌에서 어느 팀의 우위를 잡치기는 힘들다.

▲마운드는 우리 팀이 '최고'

정규리그 1위가 확정적인 SK는 10승 이상을 한 투수가 레이번, 로마노, 채병용 등 3명이나 있다. 이들은 한국시리즈에서도 '말귀만 달라'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두산은 다니엘 리오스, 맷 랜들이 버티는 원 투 펀치가 위력적이다. 3선발이 공백이었는데, 시즌 후반 해외파 이승학이 가세하면서 고민이 해결됐다.

삼성은 토종 에이스 배영수가 팔꿈치 수술로 올해를 완전히 접으면서 선발진이 약화했지만 위낙 불펜이 견고해 여간해서는 뚫기 힘든 방패를 보유했다.

권오준, 권혁이 기대만 못한 건 사실이나 마무리 오승환이 중심을 잡고 정현욱, 윤성환, 안지민에 때에 따라서는 임창용까지 나서서 한 가을이 활약을 펼칠 게 자랑거리다.

한화는 사상 세 번째로 데뷔 후 2년 연속 15승 고지를 돌파한 '괴물' 류현진이 이끄는 선발진이 뒤집게 없다는 평가다. 포크볼, 커브, 슬라이더 등을 자유자재로 뿌리는 정민철(11승)이 부활했고 세드리 바우어(10승)도 제 몫을 하고 있어 단거리에서는 뒤질 게 없다. 다만 잦은 우천취소로 정규리그 막판 경기와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의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짐에 따라 준플레이오프부터 힘을 빼야하는 3~4위 팀의 마운드 손실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K 두산 삼성 한화

SK, 선두 독주 속 2위 자리다툼 치열

▲가을잔치 추남(秋男)은 누구?

매년 가을잔치엔 추남(秋男)이 나타난다. 포스트시즌만 되면 필멸 날아다니는 선수를 흔히 '가을남자'라 부른다. 평균성적이 중요한 정규시즌과는 달리 포스트시즌에선 '추남'이 나와야만 우승 트로피도 가능하다는 게 야구계의 정설이다.

가을남자 하면 우선 삼성의 김재걸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5년 유격수 박진만의 부상 공백을 대신한 김재걸은 그해 두산과의 한국시리즈에서 괴력을 발휘, MVP급 활약을 했다.

당시 시리즈 MVP는 마무리 오승환이 차지했지만, 김재걸은 12타수 6안타의 5할타에 4득점, 2타점, 볼넷 5개로 필멸 날았다.

수비력에선 최고로 평가받는 그이지만 타격부문에서 올 시즌에도 2할 4푼대를 오갈 정도로 부진하다. 하지만 김재걸에겐 아직 가을잔치가 남아있다.

두산에선 '톱타자' 이종욱이 '추남' 후보 0순위다. 올 시즌 꾸준히 3할타를 선보이며, KIA 이현근과 최다 안타왕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종욱은 한마디로 '종합 선물세트'다.

빠른발로 번트, 강공, 수비, 베이스러닝 등 모든 작전을 소화하며 상대 수비진을 들쭉서 놓는 게 특기. 큰 경기에선 그의 이같은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에선 '국민 우익수' 이진영이 다크호스다. 올 시즌 도중 뇌졸중 부상을 입긴 했지만, SK 창단 멤버인 그는 큰 경기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두둑한 배포를 지니고 있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이진영은 "팀 우승에 꼭 기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한화에선 벌써 '추남'이 나타났다. 시즌 내내 2할대 초반의 부진에 시달리던 고동진이 그 주인공. 시즌 초 톱타자로 낙점됐던 그는 타격부진으로 9번타순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9월들어 4할대에 육박하는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그는 거북이 군단 한화에서 가장 많이 빠른 선수다.

올 시즌 가을잔치에선 이들 외에도 어떤 '추남'이 등장할 지, 이를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듯 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포스트 시즌 내달 9일 시작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를 포함한 올해 포스트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정규시즌 3~4위 팀이 벌이는 준플레이오프(3전2선승제)는 10월9일 시작되고 여기에서 승리한 팀과 정규리그 2위 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는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또 대망의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는 10월22일 시작되고 최종 7차전까지 개최되면 같은 달 30일 모든 일정을 마친다.

최근 비로 취소돼 추후 일정으로 넘겨진 11경기는 10월2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소화하도록 편성했다.

다만 페넌트레이스 경기가 우천 취소 등으로 포스트시즌 일정과 겹치면 정규시즌 종료일과 준플레이오프 개시일 사이에 최소 하루를 이동일로 정해 재편성하기로 했다.

4강에 진출하지 못한 팀의 경기는 우천으로 연기되거나 포스트시즌 일정과 동시에 진행된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 다음 날로 순연되지만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사이에 최소 하루를 이동일로 정했다.

한편 페넌트레이스 잔여 경기는 10월5일까지 추가 편성했고 이 경기가 우천으로 순연되면 예비일에 편성하고 다음 날 동일 대진일 때는 더블헤더로 진행한다.

더블헤더 시작시간은 주중은 오후 3시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2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프로야구 4강 진출 팀간 승패표

Table with columns: 팀명, SK, 두산, 삼성, 한화. Rows show win-loss records between teams.

■ 프로야구 4강 진출팀 중간순위

Table with columns: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홈승패, 원정승패, 타율, 팀타율, 승률, 개입차. Rows show performance metrics for SK, 두산, 삼성, 한화.

제니트 김동진 환상의 쇄기골 UEFA컵 1라운드



러시아 프로축구 제니트의 김동진이 21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페트로프스키 구장에서 열린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컵 1라운드 스타다르 리에주(벨기에)와 홈 경기에서 후반 40분 추가골을 넣은 뒤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뛰는 김동진(25·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이 필멸 날고 있다. 김동진은 21일 오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페트로프스키 구장에서 열린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컵 1라운드 스타다르 리에주(벨기에)와 홈 경기에서 후반 40분 환상적인 하프 발리슛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작렬했다.
딕 아드보카트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제니트는 안드리 아르샤인의 두 골과 김동진의 쇄기골을 묶어 벨기에 주필러리그 1위 스타다르를 3-0으로 완파했다.
종료 5분을 남기고 공격에 가담한 김동진은 미드필드 우측간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오자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기회를 엿봤다. 김동진은 크로스가 정면에서 굴절돼 뒤로 넘어오자 왼발로 볼을 멈춰세우며 눈앞에 띄워올린 뒤 허리를 회전해 그림같은 왼발 발리슛으로 대각선 쪽인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었다.
김동진은 지난달 20일 정규리그 톱스크와 2라운드에서 두 골을 터트린 데 이어 UEFA컵 예선 2라운드 2차전 즐라테 모라프체(슬로바키아)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최근 한 달 4골, 1도움을 올리고 있다.

박지성 "올림픽 대표팀서 뛰고 싶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태극호의 '와일드카드'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국에서 재활 도중 추석 휴가를 얻어 귀국한 박지성은 21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한가위 인사를 하러 온 자리에서 '맨유 구단이 허락한다면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뭘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회와 구단이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내가 뭘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뛰고 싶다. 내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화제로 올리면서 "그 때 지성이 있었으면 우리가 8강이 아니라 결승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당시엔 허핑(PSV 에인트호벤) 감독이 지성을 내주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가 최종엔선 3승을 올려 본선에 갈 것 같은데 내년 베이징에선 꼭 뛰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성도 "가능하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정몽준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올림픽위원장을 맡고 있어 올림픽에 애착이 강하다. 박지성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멤버로 본선에 출전했지만 당시 한국은 2승1패를 하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아테네올림픽 때 김호근호에는 유상철(은퇴), 정경호(전북)가 와일드카드로 뛰었고 김남일(수원)은 뽑혔지만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천수 오늘 네덜란드행 유니폼 이름 LEE, 배번 16번

취업비자 발급이 늦어져 출국을 미뤘던 이천수(26·페예노르트)가 마침내 22일 네덜란드로 출발, 팀 훈련에 합류한다. 이천수의 에이전트사인(IFFA)는 20일 "여권 재발급과 비자 발급을 위해 국내에 머

물러 있던 이천수가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로 출국한다"며 "현지에서 도착한 뒤 23일 치러지는 페예노르트-에인트호벤전을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FA는 "입단식을 비롯한 향후 일정은 구단과 상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천수는 페예노르트에서 등번호 16번을 받았고, 유니폼 이름은 'LEE' 결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